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9. 14.(목) 10:30 < 9.14.(목) 석간 > 배포 2023. 9. 13.(수)

차량용 요소, 수급에 차질 없어

- 업계와 요소 관련 산업공급망 점검 회의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9월 14일(목) 10시, 대한상의에서 차량용 요소 공급망 점검을 위한 「산업공급망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롯데정밀화학, 블루텍, ㈜성홍 등 차량용 요소 수입·유통업체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관련 기관이 참석하였다.

먼저, 수입업계는 "차량용 요소 재고가 70일분(민간 재고 55일분, 조달청 비축 15일분) 확보되어 있으며, 2.5개월분에 해당하는 수입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어 11월까지 차례대로 수입될 예정"으로 "현재 중국에서 수입하는 요소 수요와 공급에 차질은 없으며, 외신 보도된 9. 7.(목) 이후에도 중국 생산업체가 우리 기업들과 정상적으로 신규 계약을 체결 중"이라고 하였다. 또한, "동남아, 중동 등 수입 대체 처도 이미 확보되어 있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도입을 타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9. 8.(금)~9. 13.(수) 간 중국 차량용 요소 생산업체-국내 업체는 신규 수입계약 7건(8,600t) 체결

유통업계는 "소비자의 불안 심리 등으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부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대형할인점 등 유통업계는 유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업계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중국 내 요소 거래가격이 보합세에 있고, 현지 요소기업의 생산량도 회복되어 가는 등 추가 수출 축소의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현지 동향을 설명하였다.

* 중국 요소 현물가(블룸버그, CHURSHAD Index, $/미터) : ('22) 386 → ('23. 8.) 357 → ('23. 9월 1주) 359 → ('23. 9월 2주) 357 → ('23. 9월 12일) 357

산업부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중국의 요소 수출 축소는 비료용 수출물량으로 중국 정부 차원의 공식 조치가 아님을 여러 외교채널을 통해 확인했다."라고 언급하면서, "2년 전과는 달리, 적정 재고를 유지하고 있고 대응체계도 갖춰져 있어 국민께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강조하였다.

* 비료용 요소는 수입처 기(旣) 다변화 : 카타르(41.1%), 중국(17.4%), 베트남(13.4%) 등 (23. 1.~7. 기준)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요소 수요와 공급 상황을 자세히 점검하면서, 요소수 생산과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산업공급망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종주 (044-203-4910)
		담당자	사무관	황채은 (044-203-4913)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팀	책임자	과 장	이동철 (044-203-4725)
		담당자	사무관	김민성 (044-203-4935)
	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	책임자	과 장	주원석 (044-203-5690)
		담당자	사무관	김성건 (044-203-569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